

2011. 10. 24.

# 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KDI 홍보팀

TEL 02) 958-4030 FAX 02) 960-0652 E-mail press@kdi.re.kr

## KDI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회의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 한국경제의 성과와 과제

Conference in Commemoration of KDI's 40th Anniversary  
The Korean Economy in the Age of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:  
Accomplishments and Challenges

- 기간: 2011년 10월 24(월) ~ 25(화)
- 장소: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하모니 볼룸(B1)
- 주최: KDI(한국개발연구원)

### 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

#### 세션 2. 금융시스템 및 규제 패러다임 변화

[박정수, 서강대학교 교수]

- 금융과 성장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듯 자금이 금융 경제에서 실물경제로 흘러가면서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음.
- 금융자유화의 진행은 기업의 총 요소 생산을 성장에 기여한 반면 자금시장에서의 직접적인 자금조달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함.

- 기업 및 산업 레벨에서의 분석은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는 데이터 등의 이유로 추정되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.
  - 기업레벨의 분석에서는 금융자유화로 인해 은행 대출이 증가하고, 총요소 생산을 성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나 산업레벨의 분석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음.
  - 이러한 차이는 기업레벨에서는 데이터에 대기업만 포함되고 산업레벨에는 작은 기업도 포함되는 등의 데이터 문제로 보여짐.
- 대부분의 가게들이 은행 대출을 받았을 때 더 높은 소득을 얻고 사회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.

[김준경,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]

- 1997년 위기 이전에 한국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등의 정치적인 이유로 점진적이고 치우친 금융 자유화를 시행함으로써 시중은행을 많이 통제했으나, 제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야기됨.
- 1997년 위기 때 규제완화로 인해 제2금융권이 급속 성장하면서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, 재벌과 제2금융권의 밀접한 관계로 인한 부채 비율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1997년 위기 이후에 금융 규제 시스템이 통합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짐.
- 최근 신용카드 회사 사태와 저축은행 사태 또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금융 감독의 시정 유예로 인해 발생
  - 이처럼 동북아 금융의 허브가 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따라 실시된 규제 완화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를 가져옴.
- 건전성 감독과 독립성,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

[박영철, 고려대 석좌교수]

- 금융 규제 완화가 금융 안정과 소득 분배에 끼친 영향에 대한 예비적 결과발표는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는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.
- 1997년 금융 위기 이후 금융 개혁과 자유화가 이루어졌고 이제는 시장 위주의 금융 산업 운영이 가능해졌으나,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한지, 금융 자유화가 안전성과 어떤 관계가 생겼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.
- 한국의 경우, 2008년 금융 위기와 1997년의 IMF 위기 때와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보임.
  - 금융체제변화를 겪었음에도 한국은 아직 성공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, 위기 때마다 큰 타격을 입는 것, 외부에서 지적하는 금융정책과 관습 관련 문제점 등은 15년 전과 똑같음.
-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위기를 조정하는 과정과 단계는 여러 정부에서 유사하게 나오는데, 여러 연구에 따르면 금융 자유화는 자원의 배분, 소득재분배에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.

- 토론 -

[랜달존스, OECD 경제국 선임이코노미스트]

- 최근 한국은행법의 개정에 따라 금융 자유화에 따른 관리 감독 기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통합적인 감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  - 개정된 한국은행법에 따르면, 중앙은행은 각 금융기관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관리감독 기능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효율성을 증진하고 재정부로부터 비교적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됨.

- 한국의 근로시간은 연간 2000시간 이상으로 연간 근로시간이 1500시간  
등인 독일 등 OECD 34개국 중 1위인 반면 생산성은 상위 17개국의 절  
반에 못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, 생산성 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.
- 한국은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불안을  
염려하여 이의 사용을 지양하고 있는데, 외환보유에 따른 관리, 운영비  
용 및 기회비용을 감안할 때 스왑 등을 통한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  
할 필요가 있음.
- 박영철 교수의 발표에서 강조된 것처럼, 한국은 지난 세월동안 유동성  
위기를 심하게 겪어왔으나 이러한 경험을 통해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 
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함.
- 두 차례의 세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한국의 은행들은 비교적 건강  
한 재정 상태를 유지해왔는데, 앞으로는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  
부의 경제 위기를 내재화 하여 시장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 
수 있도록 버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함.
- 대기업과 제조 분야에 대응하여 중소기업과 서비스 분야의 문제는 한  
국사회가 극복해야하는 주요한 이슈로서,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의 대  
출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정책적 지원과 지지를 꾸준히 늘려왔음.

[강동수, KDI 거시, 금융정책연구부장]

- 앞의 발표에서,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것이 금융 개혁 효율성의 증거  
로 충분한 것인지와 금융 자유화와 금융 개혁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  
는지는 의문
- 금융자유화 인덱스로 제시된 자료 이외에 IMF 금융 개혁 인덱스나 세  
계은행의 Doing Business 인덱스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임.
  - 실증적 모델을 제시하기 전에 기업 경영과 생산과정에서 금융시장이 제공하는  
대출과 펀드가 수행하는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.
- 최근에 발생한 금융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인지 인적 자원의 문제인지  
연구할 필요가 있음.